

# 추사의

SPECIAL  
EXHIBITION  
대구관공  
미술관  
기획전



Echoes of a Master: Chusa's Critique  
and the Evolution of His Disciples

秋中  
筆

대구  
관공미술관  
전시실 4  
Exhibition  
Hall 4  
Kansong  
Art Museum  
Daegu



2026.  
4.7.  
-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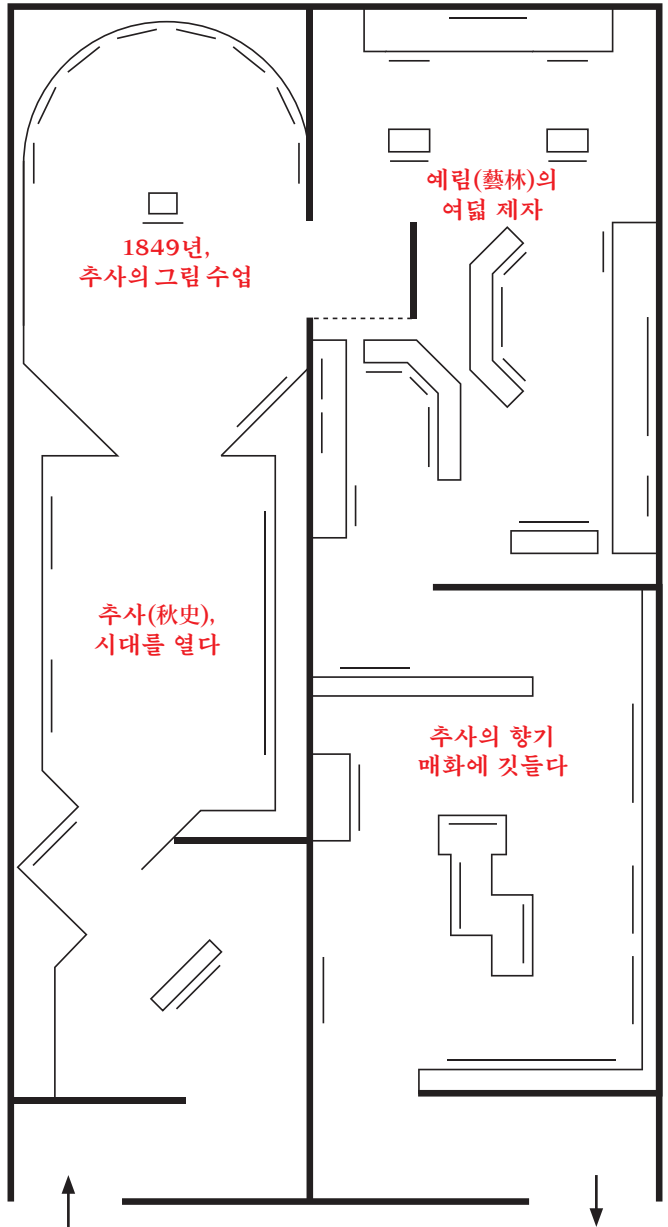
# 그림수업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조선 말기의 대학자이자 예술가로 인문학 전반에 통달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추사는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학문 체계를 세운 문인이자, 시·서·화(詩·書·畫) 모두에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 지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던, 19세기의 ‘문화 아이콘’으로, 학문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드높은 경지를 이뤘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문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세한도>를 비롯해 <불이선란도>, <난맹첩> 등 추사의 대표 회화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어 제자들의 작품을 비평한 『예림잡을록』을 단초로, 추사화파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전통이라는 토대 위에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갔던 제자들의 고민과 여정을 이들의 작품들로 소개합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추사화파의 그림을 통해, 조선 말기의 회화가 근대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Kim Jeonghui (1786–1856), better known by his pen name Chusa, was a preeminent scholar and artist of the late Joseon Dynasty. A leading intellectual who mastered the full spectrum of the humanities, he established a rigorous academic system rooted in meticulous textual and historical research. He was a true literatus, excelling in the “Three Perfections”—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As a 19th-century “cultural icon” at the heart of East Asia’s intellectual networks, Chusa reached a sublime realm where profound scholarship and refined art harmoniously converged.

This exhibition showcases Chusa’s representative masterpieces, including *Sehando* (*Winter Scene*)—the quintessence of Joseon literati painting—alongside works such as *Non-dual Seon Orchid*, and *Album of Orchid Paintings*. It continues by tracing the footsteps of the Chusa School, guided by the *Yerim gabeullok* (*Notes from the Grove of Art*), a collection of Chusa’s critiques of works created by his disciples. Rooted in tradition, these artists forged their own distinct creative realms through constant artistic struggle and exploration. By presenting the works of the Chusa School, which heralded a new era under the principle of “creating the new through study of the old,” we hope this exhibition invites viewers to witness the dynamic transition of late Joseon painting into the modern age.



오디오 가이드  
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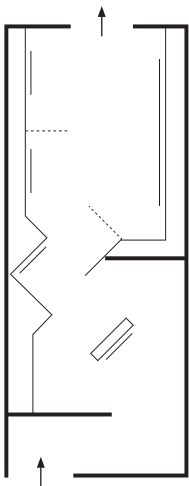
오디오 가이드  
영문

김정희는 청나라의 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 문인화의 격조를 한 단계 높였는데, 그 핵심은 소슬한 풍경의 산수화와 예스러운 필치의 묵란화에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서화일치’의 미학을 보여주는 김정희 회화 세계를 조명합니다.

추사 내면의 고독이 투영된 <고사소요>와 <세한도>에는 송백의 지조와 갈필의 미감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 그리는 법식을 집대성한 <난맹첩>과 더불어, 기교를 넘어 무심의 화경(畵境)을 이룬 <불이선란도>는 추사 묵란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Kim Jeonghui elevated the standing of Joseon literati painting by actively embracing painting theories of the Qing Dynasty. At the heart of this achievement lie his landscapes of lofty desolation and his ink orchids rendered with archaic brushwork rooted in calligraphy. Section 1 explores Kim’s artistic world, highlighting his core philosophy: the unity of calligraphy and painting. *Lofty Scholar Roaming at Ease*, reflecting Kim’s inner solitude, and the National Treasure *Sehando (Winter Scene)* condense the steadfast integrity of the pine and cypress alongside the distinctive beauty of the dry-brush technique. In addition, along with the *Album of Orchid Paintings*—a compilation of the methods for painting orchids—the masterpiece *Non-dual Seon Orchid* represents the pinnacle of his ink orchids, reaching a painterly realm of “no-mind” that transcends mere tech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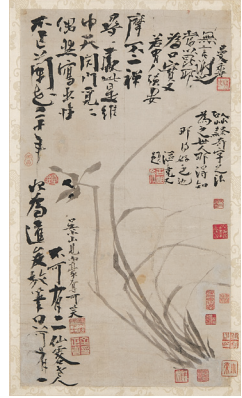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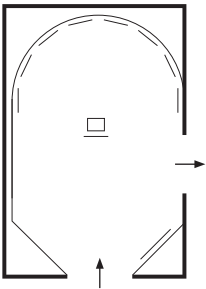
- 1 세한도 歲寒圖 (국보)  
Sehando (Winter Scene)  
김정희 金正喜, 1844,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기간 : 4.7. - 5.10.
- 2 목란 墨蘭  
Orchid  
김정희 金正喜, 19세기 중반  
전시 기간 : 4.7. - 5.31.
- 3 《난맹첩 蘭盟帖》(보물)  
Album of Orchid Paintings  
김정희 金正喜, 1830~1840년대  
(상) 산상난화 山上蘭花  
(하) 염화취실 斂華就實  
전시 기간 : 5.12. - 7.5.
- 4 불이선란도 不二禪蘭圖 (보물)  
Non-dual Seon Orchid  
김정희 金正喜, 19세기 중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기간 : 6.2. - 7.5.

## 1849년, 추사의 그림 수업

2부에서는 제자들이 그린 《팔인수묵산수도》와 추사의 비평이 수록된 『예림갑을록』을 통해 1849년 여름, 추사화파의 그림 수업으로 안내합니다. 이한철, 허련, 전기 등 여덟 제자가 그린 산수화 팔폭은 원나라 문인화풍을 바탕으로 그린 격조 높은 산수화입니다. 추사는 외형적 기교인 ‘속기(俗氣)’를 경계하며 구체적인 필묵법을 지도했고, 제자들은 이에 조응하여 각자의 화풍을 구현했습니다. 이들 그림은 추사의 문인화론이 제자들을 통해 전승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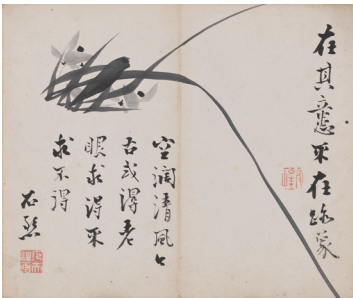
## 1849: Painting Critiques with Chusa

Section 2 invites visitors into the painting gatherings of the Chusa School in the summer of 1849, centered on the *Eight-Panel Set of Ink Landscapes*, created by Kim Jeonghui’s disciples, and *Yerim gabeulluk (Notes from the Grove of Art)*, which records Chusa’s critiques. The eight landscapes—by artists including Yi Hancheol, Heo Ryeon, and Jeon Gi—are elegant works grounded in the literati painting style of the Yuan Dynasty. Cautioning against superficiality, Chusa offered detailed instruction in brush and ink techniques. In response, his disciples articulated their own distinctive styles. Together, these paintings vividly illustrates how Chusa’s literati painting theories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works of his followers.





1



2

1 《팔인수목산수도 八人水墨山水圖》, 1849, 리움미술관  
*Eight-Panel Set of Ink Landscapes*

(좌) 추강만속 秋江晚矚, 허련 許鍊  
 (중) 소림청장 疎林晴嶂, 유숙 劉淑  
 (우) 계당납상 溪堂納爽, 김수철 金秀哲

2 목란 墨蘭

*Orch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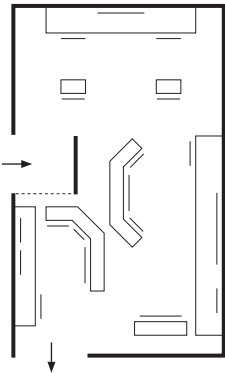
조희룡 趙熙龍, 19세기

## 예림(藝林)의 여덟 제자

3부에서는 추사의 문인화를 공유했던 여덟 제자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이들 제자 중에서 허련과 유재소는 문인화의 정통을 충실히 계승해 맑고 담담한 필치의 산수화를 남겼습니다. 한편, 도화서 화원 출신인 이한철·박인석·조중묵·유숙은 추사의 문인화풍 위에 화원 특유의 정교함과 유려함을 가미하여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와 김수철은 대담한 생략과 화사한 채색으로 추사의 담박한 사의(寫意)를 참신하게 재해석하여 문인화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 Eight Disciples of the Yerim, the “Grove of Art”

Section 3 introduces diverse works by eight disciples who shared Kim Jeonghui’s vision of literati painting. Among them, Heo Ryeon and Yu Jaeso faithfully inherited orthodox traditions, producing landscape paintings characterized by clear and restrained brushwork. Meanwhile, Yi Hancheol, Park Inseok, Jo Jungmuk, and Yu Suk—court painters of the Dohwaseo—integrated Chusa’s literati style with the technical precision and elegant refinement of professional painters. Finally, Jeon Gi and Kim Sucheol reinterpreted Chusa’s aesthetic of the expressive spirit of literati painting through bold omission and vibrant color, expanding the horizons of the genre.





1



3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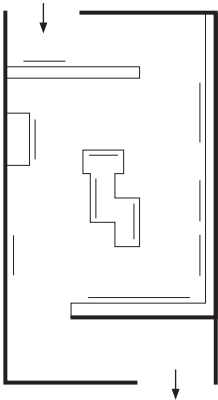
- 1 제주 망경루 濟州 望京樓, 《소치화품 小癡畫品》  
Jeju Manggyeongnu Pavilion, Sochihwapum  
(Album of Paintings by Heo Ryeon)  
허련 許鍊, 1843, 공창호 소장
- 2 (좌) 묘암근수 茆庵近水  
Thatched House Near the Water  
(우) 산촌우제 山村雨霽  
Rain Clearing in a Mountain Village  
허련 許鍊, 19세기
- 3 운계선관 雲溪仙館  
Mystical Hope by the Cloud Stream  
조중묵 趙重默, 19세기
- 4 송계한담 松溪閑談  
Leisurely Conversation Beneath Streambank Pines  
김수철 金秀哲, 1859

## 추사의 향기 매화에 깃들다

4부에서는 추사화파 제자들이 조희룡의 영향 아래 제작한 다채로운 매화 그림을 소개합니다. 매화 숲을 그리는 ‘만매(萬梅)’ 형식의 매화서옥도는 매화가 지닌 고고한 상징성 위에 19세기 중인층의 미감이 더해진 그림입니다. 조선 말기의 매화 열풍은 조희룡의 <매화서옥>에 이르러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꿈틀대는 용을 연상시키는 분방한 필치 속에서 자신만의 화경을 일군 화가의 당당한 자부심이 엿보입니다. 전통이라는 견고한 뿌리 위에 외부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일궈낸 추사화파의 성취는, 예술이 시대를 초월해 생명력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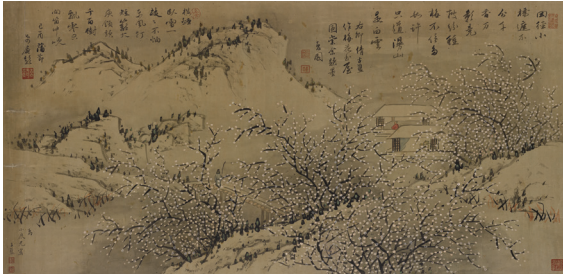
## Chusa's Fragrance Lingering in Plum Blossoms

Section 4 showcases diverse plum blossom paintings created by the Chusa School under the influence of Cho Huiryong. The “Plum Blossom Studio” paintings, featuring the “ten thousand plum blossoms” style that depicts groves of plum trees, combine the noble symbolism of the blossom with the aesthetic sensibility of the 19th-century *jungin* (middle class). The late Joseon fascination with plum blossoms reached its peak in Cho Huiryong’s *Plum Blossom Studio*. Within his dynamic and unrestrained brushwork—reminiscent of a writhing dragon—one can glimpse the artist’s confident pride and his own distinctive painterly realm. The achievements of the Chusa School, built upon the firm roots of tradition while actively embracing external cultural influences, illustrate how art gains a timeless vitality that transcends its era, continuing to resonate with us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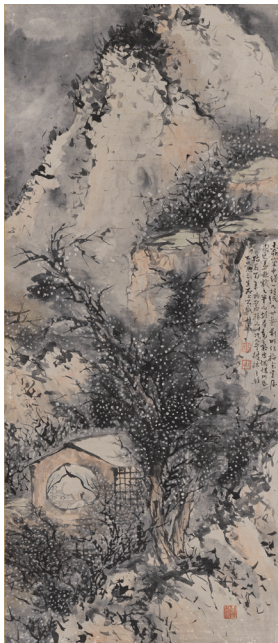




1



2



3



4

- 1 삼십만매수하실 三十萬霖樹下室  
*Studio Beneath 300,000 Plum Trees*  
 김정희 金正喜, 1853년경
- 2 매화서옥 梅花書屋  
*Plum Blossom Studio*  
 전기 田琦, 1849
- 3 매화서옥 梅花書屋  
*Plum Blossom Studio*  
 조희룡 趙熙龍, 19세기
- 4 설중한매 雪中寒梅  
*Cold Plum Blossoms in the Snow*  
 김수철 金秀哲, 1859

## 전시 해설

화요일-일요일 11:00, 14:00 (1일 2회)

소요시간 : 30분

장소 : 1층 강당

사전예약 없이 현장에서 진행

※ 미술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 대구간송미술관

리플릿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대구간송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70 대구간송미술관

전화 053.793.2022

[www.kansong.org/daegu](http://www.kansong.org/daegu)

[instagram.com/kansongart.daegu](https://instagram.com/kansongart.daegu)

[youtube.com/@kansongart\\_daegu](https://youtube.com/@kansongart_daegu)

## 교육 프로그램

간송예술강좌

체험 프로그램 : 함흥 프로젝트

## 문화 프로그램

기획자의 시선 큐레이터 투어

밤의 미술관

※ 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관람 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9: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 상황에 따라 관람 시간 단축 및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안내

- 빛에 민감한 회화 작품 보호를 위해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 촬영시 플래시, 삼각대, 셀카봉 사용을 삼가주세요.
- 2층 안내 데스크에서 전시해설 오디오가이드 기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